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9호 【루게 제24917호】 주제104(2015)년 5월 19일 (화요일)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동강자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동강자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황병서동지, 오수용동지, 리재일동지,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대동강자라공장은 예로부터 귀한 보약제로 널리 알려진 맛있고 영양가 높은 자라를 우리 인민들에게 공급해주시려고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일떠선 규모가 큰 자라양식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공장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있다는 보고를 받고 실태를 료해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동강자라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공장실태에 대하여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 대동강자라공장을 돌아보시며 이제는 우리 인민들에게 약재로만 쓰이던 자라를 먹일수 있게 되었다고 것처럼 기뻐하시던 장군님의 눈물겨운 사연이 깃들어있는 공장이 어떻게 되어 이런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억이 막혀 말이 나가지 않는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공장에 혁명사적교양실도 꾸리지 않은것은 도저히 리해할수 없는 문제라고,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심장깊이 새기지 못한 종업원들이 생산에서 주인구실을 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분위기가 자신께서 돌아보신 다른 공장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알아먹고있다고 하시면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도 바로하지 않고있는 이런 단위가 생산을 정상화할수 없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격하신 어조로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전투적 구호도 바로 세워져있지 않은 공장안에서 맥빠진 한숨소리만 들린다고 하시면서 공장이 주저앉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놀라울 정도라고, 이런 단위는 처음 보았다고 격노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는 문제를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 단위들에서는 모든 일이 잘되고 인민들

이 당정책의 실질적인 덕을 보고있으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나오고있지만 그렇지 못한 단위들에서는 패배주의자의 한숨소리만 울려나오고 조건을 보장해주어도 알아듣개기만 한다는것이 우리가 찾게 되는 교훈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에서 민물왕새우를 기르라고 종지도 보내주었으며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었지만 공장에서는 2년이 지나도록 양식장을 완공하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공장일군들의 무능과 끈어진 사고방식, 무책임한 일본새의 발로이라고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기문제, 물문제, 설비문제가 걸려 생산을 정상화

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 너두리라고 하시면서 공장일군들은 시대의 벽한 숨결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동면하고있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얼마나 가슴아파하실것인가를 생각해보았는가고 격노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동강자라공장이 현대화사업도 잘하지 않고있다고 하시면서 수질측정 및 자동조종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이 공장에서처럼 양식장내부를 감시나 하는 카메라만 설치해놓은것이 무슨 중합조종실이고 현대화인가고 지적하시였다.

공장에서 양식에 필요한 물보장 및 순환체계는 물론 먹이보장대책도 과학적으로 세워야 하겠는대 조건과 환경을 운운

식방법과 기술이 도입된 우리 나라 양식의 본보기단위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동강자라공장에서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양식을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전력보장대책을 바로세우데 대한 문제, 우리의 힘과 기술로 자라알개우기설비를 제작하고 방역시설들을 그쯘히 갖추어 놓으며 전반적인 생산공정들을 자동화하기 위한 문제, 먹이문제를 100% 국산화해 대한 문제, 양식을 과학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이기 위한 문제 등 공장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 전하며 사회주의대지는 설레이다

우리는 얼마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자육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통천군 장산리를 찾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인사를 높이 받들고 영농전투로 들끓는 드넓은 농장벌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양치바른 곳에 옛모습 그대로 민주선진실이 자리잡고있었다. 오늘은 리혁명사적교양소로 리용하고있는 사적건물이었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 장산리의 녀성들이 부른 노래소리가 귀전에 정정히 울려오는듯싶고 전시시향 중산을 위해 헌신분투하고 열열을 토로하던 당원들의 신심넘친 모습도 눈앞에 선히 안겨오는것 같이 우리의 생각은 깊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위한 애인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력사의 땅 장산리!  
지난 1950년대에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흔히 볼수 있었던 수순한 농촌마을이었다. 옛적에는 가난만이 농크리고있어 사람들의 발길마저 잘 밟지 않았던 고장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자욱이 새겨져있어 오늘은 온 나라가 다 아는 장산리로 되었다.

우리는 리망의 한 일꾼으로부터 그 나날의 사연깊은 이야기들을 들을수 있었다.

전정의 불구름이 타래쳐오르던

## 력사의 땅 장산리에 새겨진 불멸의 이야기

주제 41(1952)년 6월 어느날 저녁 어머니수령님께서는 통천군 장산리(당시 하장리)를 찾으시었다.

그때 민주선진실에서는 당원들이 모개지정형을 총화하고 당면한 김개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안건으로 세포총회를 하고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어머니수령님께서는 일꾼들에게 그곳에 가보라고 하시었다.

전날에 미제 공중비적들의 신의주대공격이 있었는지라 위협은 곳곳에 도사리고있었다. 바로 그 포연사린 위험한 길을 헤쳐오신 어머니수령님께서 자신의 로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포총회장으로 향하실 때 그이를 우러르는 일꾼들의 마음은 뜨거워올랐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도중에서 차를 멈춰세우도록 하고 걸으시어 민주선진실로 향하시었다. 불빛회피한 방앗쪽에 조용히 자리를 잡으신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당세포총회보고와 당원들의 열정에 넘친 토론들을 주의깊게 들으시었다.

시간이 흘러 휴식을 알리자 어머니수령님께서 계시는줄을 알리셨던 녀성당원들은 한 녀당원이 치는 풍금을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 «영생불멸의 혁명승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가요 [발걸이노래], [조국보위의 노래]...»

발하늘가에 울려 퍼지는 노래소리는 자기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어머니수령님에 대한 헌없는 그 이름과 사랑하는

조국을 지켜싸우 녀성당원들의 한마음을 담고있었다. 얼마 후에 야 당원들은 어머니수령님께서 자기들의 당세포 총회에 참가하시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몸짓껏 만세를 부르는 당원들에게 따듯이 답례하신 어머니수령님께서는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시었다. 당세포총회는 어머니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계속되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당세포총회가 아주 잘되었다고, 당원들이 토론을 열정적으로 하고 사기도 높다고, 앞으로 당세포사업이 발전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고무격려해주시었다. 오늘 당세포총회에서 토론한 녀성동무가 논머리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농사를 잘 지어 전선에서 적들과 판가리싸움을 하고있는 남편과 오빠들에게 더 많은 식량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는데 그 결심이 아주 좋다고 하시면서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당원들은 누구나 다 이 동무와 같은 그런 정신, 그런 투지를 가지고 일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농촌당원들앞에 나선 첫째가는 전투적업은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여 전선에 보내주는것이라고 하시며 그 실천방도에 대하여서도 하나 하나 가르쳐주시는 어머니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은 장산리당원들의 가슴마다를 새차게 울려주었다.

당원들은 어려운 매일수목 대중의 열마 후에야 당원들은 어머니수령님께서 자기들의 당세포 총회에 참가하시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몸짓껏 만세를 부르는 당원들에게 따듯이 답례하신 어머니수령님께서는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시었다. 당세포총회는 어머니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계속되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당세포총회가 아주 잘되었다고, 당원들이 토론을 열정적으로 하고 사기도 높다고, 앞으로 당세포사업이 발전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고무격려해주시었다. 오늘 당세포총회에서 토론한 녀성동무가 논머리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농사를 잘 지어 전선에서 적들과 판가리싸움을 하고있는 남편과 오빠들에게 더 많은 식량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는데 그 결심이 아주 좋다고 하시면서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당원들은 누구나 다 이 동무와 같은 그런 정신, 그런 투지를 가지고 일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농촌당원들앞에 나선 첫째

가슴마다를 새차게 울려주었다. 당원들은 어려운 매일수목 대중의 열마 후에야 당원들은 어머니수령님께서 자기들의 당세포 총회에 참가하시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몸짓껏 만세를 부르는 당원들에게 따듯이 답례하신 어머니수령님께서는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시었다. 당세포총회는 어머니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계속되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당세포총회가 아주 잘되었다고, 당원들이 토론을 열정적으로 하고 사기도 높다고, 앞으로 당세포사업이 발전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고무격려해주시었다. 오늘 당세포총회에서 토론한 녀성동무가 논머리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농사를 잘 지어 전선에서 적들과 판가리싸움을 하고있는 남편과 오빠들에게 더 많은 식량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는데 그 결심이 아주 좋다고 하시면서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당원들은 누구나 다 이 동무와 같은 그런 정신, 그런 투지를 가지고 일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농촌당원들앞에 나선 첫째

가슴마다를 새차게 울려주었다. 당원들은 어려운 매일수목 대중의 열마 후에야 당원들은 어머니수령님께서 자기들의 당세포 총회에 참가하시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몸짓껏 만세를 부르는 당원들에게 따듯이 답례하신 어머니수령님께서는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시었다. 당세포총회는 어머니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계속되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당세포총회가 아주 잘되었다고, 당원들이 토론을 열정적으로 하고 사기도 높다고, 앞으로 당세포사업이 발전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고무격려해주시었다. 오늘 당세포총회에서 토론한 녀성동무가 논머리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농사를 잘 지어 전선에서 적들과 판가리싸움을 하고있는 남편과 오빠들에게 더 많은 식량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는데 그 결심이 아주 좋다고 하시면서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당원들은 누구나 다 이 동무와 같은 그런 정신, 그런 투지를 가지고 일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농촌당원들앞에 나선 첫째

가슴마다를 새차게 울려주었다. 당원들은 어려운 매일수목 대중의 열마 후에야 당원들은 어머니수령님께서 자기들의 당세포 총회에 참가하시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몸짓껏 만세를 부르는 당원들에게 따듯이 답례하신 어머니수령님께서는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시었다. 당세포총회는 어머니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계속되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당세포총회가 아주 잘되었다고, 당원들이 토론을 열정적으로 하고 사기도 높다고, 앞으로 당세포사업이 발전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고무격려해주시었다. 오늘 당세포총회에서 토론한 녀성동무가 논머리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농사를 잘 지어 전선에서 적들과 판가리싸움을 하고있는 남편과 오빠들에게 더 많은 식량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는데 그 결심이 아주 좋다고 하시면서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당원들은 누구나 다 이 동무와 같은 그런 정신, 그런 투지를 가지고 일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더 높이 울려었다고 한다.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받고도 주저않았듯이 어머니수령님께서는 용기를 내어 연약한 손에 보람을 틀어잡고 벌에서 살다살이 하면서 전선에 더 많은 쌀을 보내주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장산리의 녀성들...  
그렇다. 장산리사람들의 신념의 노래는 좋은 날 백날을 따르는데보다 준엄한 때 하루를 따르는것이 더 중요하다는 혁명의 철리를 새겨주었다.

그때로부터 14년세월이 흐른 어느날에도 어머니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장산리를 찾으신다.

잊지 못할 전화의 그날을 회상하시면서 전시당원들의 인부를 돌아주시던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몇몇 당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안색을 흐리시며 좋은 동무들인데 일찍 돌아갔다고 못내 가슴아파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정시기 어머니수령님을 모시고 당세포회의에 참가하였던 장산리사람들은 다 당에 충실한 당원들이었다. 당에 충실한 이러한 당원들이 후방을 지키고있었기에 전정시기 우리는 미제와의 판가리싸움에서 승리할수 있었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장산리녀성들의 노래소리, 그것은 어머니수령님께서만 계시던 그 무덤도 두렵지 않게 전정에서 꼭 승리한다는 장산리사람들의 신념의 목소리였고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전시시향을 기어 이 보장하려는 그들의 불타는 맹세이기도 하였다.

어머니수령님께서 다녀가신 그날 부터 장산리에는 신념의 노래소리가

벌벌대 대하여서도 일일이 가르쳐주시신 위대한 장군님, 그의 다정한 사랑속에 장산리농장에는 문화회관이 훌륭히 건설되어 이곳 농장원들의 방만과 회일에 넘친 문화정생활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되고있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과 장산리사람들사이에서 맺어진 뜨거운 열연의 정은 이 땅에서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뉴태가 어찌고 이어지고 굳어져지는가를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고있다.

선군혁명명도의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제 99(2010)년 6월 19일 장산리협동농장에 또다시 령도의 자욱을 새키시었다.

력사의 증적자마냥 서있는 사적건물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을 모시고 여기에 왔던 일이 생각나다고 회고없이 추억하시었다.

이날 농장에서 자체로 건설한 태양열우렁이양식장도 돌아보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렁이에 의한 당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농장에서 일목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과업들도 제시하시었다.

농장의 기후풍토에 맞는 우렁이종을 적극 도입함에 대한 문제, 경지면적을 제한되어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당의 두벌농사방향을 관철할데 대한 문제, 지력을 부단히 높이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를데

대한 문제, 농촌문화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밀데 대한 문제...

장산리에 새겨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랑의 이야기를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오늘 장산리협동농장은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훌륭히 전변되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상교양의 거점이며 문화정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리문화회관, 아담한 농촌문화주택들, 기계화장비이며 태양열우렁이양식장...

오늘 장산리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가렬한 전화의 나날 아버지, 어머니들이 불렀던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더 높이 부르며 백두산협동농장에 또다시 령도의 자욱을 새키시었다.

력사의 증적자마냥 서있는 사적건물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을 모시고 여기에 왔던 일이 생각나다고 회고없이 추억하시었다.

이날 농장에서 자체로 건설한 태양열우렁이양식장도 돌아보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렁이에 의한 당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농장에서 일목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과업들도 제시하시었다.

농장의 기후풍토에 맞는 우렁이종을 적극 도입함에 대한 문제, 경지면적을 제한되어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당의 두벌농사방향을 관철할데 대한 문제, 지력을 부단히 높이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를데

채 히 성

## 모내는 기계가 전하는 사연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날이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모내는 기계의 시운전을 하게 될 어니 한 발을 찾으시었다.

논머리에 이르신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모내는 기계들의 성능을 하나하나 로해하니 다음 어서 모내기 해보라고 하시었다. 벼모들이 보기 좋게 꽃혔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모내는 기계의 작업모습을 바라보시며 이제는 농민들의 굶은 허리를 퍼주게 되었다고 허리를 기뻐하시었다.

어느덧 시간은 빨리도 흘러 버니 어뒤워지기 시작하였다. 일꾼들은 어머니수령님께서 이젠 그만 돌아가셨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렸다. 그러나 어머니수령님께서

## 모내는 기계가 전하는 사연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날이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모내는 기계의 시운전을 하게 될 어니 한 발을 찾으시었다.

논머리에 이르신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모내는 기계들의 성능을 하나하나 로해하니 다음 어서 모내기 해보라고 하시었다. 벼모들이 보기 좋게 꽃혔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모내는 기계의 작업모습을 바라보시며 이제는 농민들의 굶은 허리를 퍼주게 되었다고 허리를 기뻐하시었다.

어느덧 시간은 빨리도 흘러 버니 어뒤워지기 시작하였다. 일꾼들은 어머니수령님께서 이젠 그만 돌아가셨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렸다. 그러나 어머니수령님께서

## 모내는 기계가 전하는 사연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날이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모내는 기계의 시운전을 하게 될 어니 한 발을 찾으시었다.

논머리에 이르신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모내는 기계들의 성능을 하나하나 로해하니 다음 어서 모내기 해보라고 하시었다. 벼모들이 보기 좋게 꽃혔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모내는 기계의 작업모습을 바라보시며 이제는 농민들의 굶은 허리를 퍼주게 되었다고 허리를 기뻐하시었다.

어느덧 시간은 빨리도 흘러 버니 어뒤워지기 시작하였다. 일꾼들은 어머니수령님께서 이젠 그만 돌아가셨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렸다. 그러나 어머니수령님께서

## 모내는 기계가 전하는 사연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날이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모내는 기계의 시운전을 하게 될 어니 한 발을 찾으시었다.

논머리에 이르신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모내는 기계들의 성능을 하나하나 로해하니 다음 어서 모내기 해보라고 하시었다. 벼모들이 보기 좋게 꽃혔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모내는 기계의 작업모습을 바라보시며 이제는 농민들의 굶은 허리를 퍼주게 되었다고 허리를 기뻐하시었다.

어느덧 시간은 빨리도 흘러 버니 어뒤워지기 시작하였다. 일꾼들은 어머니수령님께서 이젠 그만 돌아가셨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렸다. 그러나 어머니수령님께서

## 모내는 기계가 전하는 사연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날이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모내는 기계의 시운전을 하게 될 어니 한 발을 찾으시었다.

논머리에 이르신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모내는 기계들의 성능을 하나하나 로해하니 다음 어서 모내기 해보라고 하시었다. 벼모들이 보기 좋게 꽃혔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모내는 기계의 작업모습을 바라보시며 이제는 농민들의 굶은 허리를 퍼주게 되었다고 허리를 기뻐하시었다.

어느덧 시간은 빨리도 흘러 버니 어뒤워지기 시작하였다. 일꾼들은 어머니수령님께서 이젠 그만 돌아가셨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렸다. 그러나 어머니수령님께서

## 모내는 기계가 전하는 사연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날이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모내는 기계의 시운전을 하게 될 어니 한 발을 찾으시었다.

논머리에 이르신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모내는 기계들의 성능을 하나하나 로해하니 다음 어서 모내기 해보라고 하시었다. 벼모들이 보기 좋게 꽃혔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모내는 기계의 작업모습을 바라보시며 이제는 농민들의 굶은 허리를 퍼주게 되었다고 허리를 기뻐하시었다.

어느덧 시간은 빨리도 흘러 버니 어뒤워지기 시작하였다. 일꾼들은 어머니수령님께서 이젠 그만 돌아가셨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렸다. 그러나 어머니수령님께서

## 모내는 기계가 전하는 사연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날이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모내는 기계의 시운전을 하게 될 어니 한 발을 찾으시었다.

논머리에 이르신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모내는 기계들의 성능을 하나하나 로해하니 다음 어서 모내기 해보라고 하시었다. 벼모들이 보기 좋게 꽃혔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모내는 기계의 작업모습을 바라보시며 이제는 농민들의 굶은 허리를 퍼주게 되었다고 허리를 기뻐하시었다.

어느덧 시간은 빨리도 흘러 버니 어뒤워지기 시작하였다. 일꾼들은 어머니수령님께서 이젠 그만 돌아가셨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렸다. 그러나 어머니수령님께서

## 발머리에서 가르쳐주신 농사법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삭이 말리지 않는 강냉이대들을 친히 짚어 드시었다. 새벽이슬에 그이의 옷자락은 젖어있었다. 일꾼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 일꾼은 강냉이를 너무 배게 싶었더니 수강냉이가 많이 생겼다고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뭇게 머리를 저으시며 그런게 아니라고, 조절비료를 주지 않아 수강냉이가 생겼다고 하시면서 가까이 와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친히 뿔로 강냉이포기사이를 재어보시었다. 두뿔은 실히

## 발머리에서 가르쳐주신 농사법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삭이 말리지 않는 강냉이대들을 친히 짚어 드시었다. 새벽이슬에 그이의 옷자락은 젖어있었다. 일꾼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 일꾼은 강냉이를 너무 배게 싶었더니 수강냉이가 많이 생겼다고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뭇게 머리를 저으시며 그런게 아니라고, 조절비료를 주지 않아 수강냉이가 생겼다고 하시면서 가까이 와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친히 뿔로 강냉이포기사이를 재어보시었다. 두뿔은 실히

## 발머리에서 가르쳐주신 농사법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삭이 말리지 않는 강냉이대들을 친히 짚어 드시었다. 새벽이슬에 그이의 옷자락은 젖어있었다. 일꾼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 일꾼은 강냉이를 너무 배게 싶었더니 수강냉이가 많이 생겼다고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뭇게 머리를 저으시며 그런게 아니라고, 조절비료를 주지 않아 수강냉이가 생겼다고 하시면서 가까이 와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친히 뿔로 강냉이포기사이를 재어보시었다. 두뿔은 실히

## 발머리에서 가르쳐주신 농사법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삭이 말리지 않는 강냉이대들을 친히 짚어 드시었다. 새벽이슬에 그이의 옷자락은 젖어있었다. 일꾼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 일꾼은 강냉이를 너무 배게 싶었더니 수강냉이가 많이 생겼다고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뭇게 머리를 저으시며 그런게 아니라고, 조절비료를 주지 않아 수강냉이가 생겼다고 하시면서 가까이 와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친히 뿔로 강냉이포기사이를 재어보시었다. 두뿔은 실히

## 발머리에서 가르쳐주신 농사법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삭이 말리지 않는 강냉이대들을 친히 짚어 드시었다. 새벽이슬에 그이의 옷자락은 젖어있었다. 일꾼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 일꾼은 강냉이를 너무 배게 싶었더니 수강냉이가 많이 생겼다고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뭇게 머리를 저으시며 그런게 아니라고, 조절비료를 주지 않아 수강냉이가 생겼다고 하시면서 가까이 와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친히 뿔로 강냉이포기사이를 재어보시었다. 두뿔은 실히

## 발머리에서 가르쳐주신 농사법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삭이 말리지 않는 강냉이대들을 친히 짚어 드시었다. 새벽이슬에 그이의 옷자락은 젖어있었다. 일꾼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 일꾼은 강냉이를 너무 배게 싶었더니 수강냉이가 많이 생겼다고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뭇게 머리를 저으시며 그런게 아니라고, 조절비료를 주지 않아 수강냉이가 생겼다고 하시면서 가까이 와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친히 뿔로 강냉이포기사이를 재어보시었다. 두뿔은 실히

## 발머리에서 가르쳐주신 농사법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삭이 말리지 않는 강냉이대들을 친히 짚어 드시었다. 새벽이슬에 그이의 옷자락은 젖어있었다. 일꾼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 일꾼은 강냉이를 너무 배게 싶었더니 수강냉이가 많이 생겼다고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뭇게 머리를 저으시며 그런게 아니라고, 조절비료를 주지 않아 수강냉이가 생겼다고 하시면서 가까이 와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친히 뿔로 강냉이포기사이를 재어보시었다. 두뿔은 실히

# 백두대지를 빛내이는 중요한 사업

지금 전당적, 전국적, 전사회적으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적극 지원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소를 높이 받들고 는 나라 전체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들이 백두산으로 달려가고있다. 선군혁명위업의 전위투사들인 수많은 우리의 청년들이 청년대지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일 불타는 열정을 안고 발전소건설사업에 용감

길을 따라 걸을수록 정말로 우리 장군님 같은신분은 세상에 없다는 생각이 갈마 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여기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기신 유산이고 사랑의 첫줄기이며 조국의 만년제비인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를 하루빨리 완공하여 장군님의 유혼을 빛내는 현실로 꽃피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소고한 뜻이 깃들여있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힘있게 지원하는것은 주제혁명의 성지 백두대지를 더 훌륭히 꾸리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다.

백두산은 조선의 상징이며 혁명의 성지이다. 우리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고 지켜준 백두산일고향집도 백두대지에 숨쉬기 자리잡고있으며 천만군민의 혁명신념을 버려주는 백두의 뉘과 기강도 백두대지에 응속되어있다. 백두대지에 일떠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는 단순히 하나의 건설대상이 아니라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인 삼지연군과 혁명적적자들이 있는 향장도의 인민생활과 경제문제를 푸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상이다.

적극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 동원된 군인들과 청년들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판탈하기 위한 불꽃없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콩크리트혼합물생산과 운반, 다짐, 취물조립과 물보양에 이르기까지, 주별공사계획과 단계별공사목표가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에 의하여 어김없이 집행되고있다. 백두산칼바람에

청년들은 이 세상에서 없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자들의 불굴의 정신력을 백두대지를 새로운 기적, 새로운 기록장소의 불모지로 새차게 뚫어주고있다. 김정일대령을 높은 소조로 간직한 청년들격대원들은 건설장투년의 신념을 무려 228만 4천여구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많은 려단들에서는 건설자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산밭들에 더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해 자체의 양묘장을 꾸리고 나무모를 정성껏 키워가고있다.

백두산아래 첫동네에서부터 로동당 맨손으로, 사회주의만세소리 더 높이 울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드림없는 결심이고 의지이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는 여기에 백두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당의 구상과 결심을 혁명적실천으로 만들어나가는 정신세계의 높이가 있다.

모든 부분, 모든 단위를 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성있게 틀어쥐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백암군의 서두수상부에 3개의 계단식 발전소로 건설되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는 우리 나라 수력발전소건설력사상 가장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극복하여 하는 이렇고 방대한 공사대상이다. 그러나 우리 미래는 청년전위들은 백두대지의 흑한속에서도 당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 우리 청년들처럼 지치지 않는 정력과 왕성한 투지, 대담한 전개력을 지니고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청년들은 이 세상에서 없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자들의 불굴의 정신력을 백두대지를 새로운 기적, 새로운 기록장소의 불모지로 새차게 뚫어주고있다. 김정일대령을 높은 소조로 간직한 청년들격대원들은 건설장투년의 신념을 무려 228만 4천여구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많은 려단들에서는 건설자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산밭들에 더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해 자체의 양묘장을 꾸리고 나무모를 정성껏 키워가고있다.

백두산아래 첫동네에서부터 로동당 맨손으로, 사회주의만세소리 더 높이 울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드림없는 결심이고 의지이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는 여기에 백두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당의 구상과 결심을 혁명적실천으로 만들어나가는 정신세계의 높이가 있다.

모든 부분, 모든 단위를 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성있게 틀어쥐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백암군의 서두수상부에 3개의 계단식 발전소로 건설되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는 우리 나라 수력발전소건설력사상 가장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극복하여 하는 이렇고 방대한 공사대상이다. 그러나 우리 미래는 청년전위들은 백두대지의 흑한속에서도 당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 우리 청년들처럼 지치지 않는 정력과 왕성한 투지, 대담한 전개력을 지니고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청년들은 이 세상에서 없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자들의 불굴의 정신력을 백두대지를 새로운 기적, 새로운 기록장소의 불모지로 새차게 뚫어주고있다. 김정일대령을 높은 소조로 간직한 청년들격대원들은 건설장투년의 신념을 무려 228만 4천여구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많은 려단들에서는 건설자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산밭들에 더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해 자체의 양묘장을 꾸리고 나무모를 정성껏 키워가고있다.

백두산아래 첫동네에서부터 로동당 맨손으로, 사회주의만세소리 더 높이 울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드림없는 결심이고 의지이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는 여기에 백두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당의 구상과 결심을 혁명적실천으로 만들어나가는 정신세계의 높이가 있다.

모든 부분, 모든 단위를 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성있게 틀어쥐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백암군의 서두수상부에 3개의 계단식 발전소로 건설되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는 우리 나라 수력발전소건설력사상 가장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극복하여 하는 이렇고 방대한 공사대상이다. 그러나 우리 미래는 청년전위들은 백두대지의 흑한속에서도 당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 우리 청년들처럼 지치지 않는 정력과 왕성한 투지, 대담한 전개력을 지니고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청년들은 이 세상에서 없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자들의 불굴의 정신력을 백두대지를 새로운 기적, 새로운 기록장소의 불모지로 새차게 뚫어주고있다. 김정일대령을 높은 소조로 간직한 청년들격대원들은 건설장투년의 신념을 무려 228만 4천여구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많은 려단들에서는 건설자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산밭들에 더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해 자체의 양묘장을 꾸리고 나무모를 정성껏 키워가고있다.

백두산아래 첫동네에서부터 로동당 맨손으로, 사회주의만세소리 더 높이 울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드림없는 결심이고 의지이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는 여기에 백두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당의 구상과 결심을 혁명적실천으로 만들어나가는 정신세계의 높이가 있다.

모든 부분, 모든 단위를 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성있게 틀어쥐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백암군의 서두수상부에 3개의 계단식 발전소로 건설되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는 우리 나라 수력발전소건설력사상 가장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극복하여 하는 이렇고 방대한 공사대상이다. 그러나 우리 미래는 청년전위들은 백두대지의 흑한속에서도 당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 우리 청년들처럼 지치지 않는 정력과 왕성한 투지, 대담한 전개력을 지니고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청년들은 이 세상에서 없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자들의 불굴의 정신력을 백두대지를 새로운 기적, 새로운 기록장소의 불모지로 새차게 뚫어주고있다. 김정일대령을 높은 소조로 간직한 청년들격대원들은 건설장투년의 신념을 무려 228만 4천여구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많은 려단들에서는 건설자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산밭들에 더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해 자체의 양묘장을 꾸리고 나무모를 정성껏 키워가고있다.

백두산아래 첫동네에서부터 로동당 맨손으로, 사회주의만세소리 더 높이 울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드림없는 결심이고 의지이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는 여기에 백두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당의 구상과 결심을 혁명적실천으로 만들어나가는 정신세계의 높이가 있다.

모든 부분, 모든 단위를 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성있게 틀어쥐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백암군의 서두수상부에 3개의 계단식 발전소로 건설되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는 우리 나라 수력발전소건설력사상 가장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극복하여 하는 이렇고 방대한 공사대상이다. 그러나 우리 미래는 청년전위들은 백두대지의 흑한속에서도 당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 우리 청년들처럼 지치지 않는 정력과 왕성한 투지, 대담한 전개력을 지니고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 무진막강한 위력으로 최후승리의 통장훈을 부를것이다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안전성공!

지난 5월 9일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행성을 뒤흔드는 기적같은 소식이 전파를 타고 우주공간에 울려퍼졌다.

은 세계가 조선의 전략잠수함탄도탄 충격에 빠졌다.

《기술적으로 상당히 고난도인 잠수함탄도탄 성공!》, 《팜도와 하와이 앞 바다에서 불의에 미본 토라격 가능!》, 《조선적비위를 펼친 뛰어난 전략적인 사면!》, 《조미, 북남남의 편을 강하게 흔드는 모습》, 《북잠수함탄도탄에 무방비인 남조선》, 《남조선군부에 떨어진 청천벽력》... 영국의 로이터통신, BBC방송, 프랑스의 AFP통신, 도이체프레스의 텔레프린, 일본의 지지통신, 《도쿄통신》, NHK방송, 미국의 CNN방송, AP통신,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전세계 언론들이 조선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성공소식을 크게 보도하고 있다.

우리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성공소식은 우리 겨레는 물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혁명적인 민중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얻어 주었으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는 공포를 주었다.

우리의 전략잠수함탄도탄 발사할 수 있게 된것이 왜 인공지구위성을 쏘아 올린것에 못지 않은 경이적인 성과이며 기적이다.

최첨단과학기술의 집합체인 인공지구위성발사 나라의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라면 전략잠수함탄도탄발사는 군사력의 질적수준에서 전략적우세를 보여주는 기준이다.

우리가 전략잠수함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게 된것이 왜 인공지구위성을 쏘아 올린것에 못지 않은 경이적인 성과로 되는가에 대하여 내외여민들의 격

찬적인 평가를 통하여 보자.

《물음:북의 잠수함탄도탄수중발사 시험성공의 의미가 무엇인가. 대답:사실 기술적으로 말한다면 그 동안 북이 팜도나 하와이를 타격할수 있는 수단이 지상탄도미사일이었다면 이제는 잠수함탄도미사일이 팜도나 하와이 앞바다에서 직방 발사될수 있다는 소리이다. 지금 미국립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수밖에 없다. 특히 핵탄두가 탑재된 잠수함탄도탄이 배비된다면 미국에는 엄청난 악몽이다.》(남조선 《MBC》 방송대담)

《전세에서 불과 몇개의 군사강국만이 독립하고있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북이 개발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전략폭격기에 비해 잠수함은 은밀하게 적으로 침투해 타격할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협적이다. 지형적이지 않을수 없다.》(남조선 《국민일보》)

《북의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보유는 확실한 핵보복력을 확보해 강력한 핵억제력을 발휘할수 있게 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의 발사로 미사일방위체계를 무용지물로 만들기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핵전략의 도약과 더불어 남조선미국동맹의 대북억제력 약화를 피할것 없다.》(남조선인터네트 신문 《뉴스시》에 실린 피피티통신원 두뇌진들의 평)

《북조선의 전략잠수함탄도탄은 앞으로 남조선과 일본, 동아시아에 있는 미군기지들에 대한 위협을 더욱 크게 할것이며 미국미사일방위계획과 전개, 운운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것이다. 공격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들은 탐색, 추적까지 힘들고 그 어떤 방위에서도 공격할수 있는 기동잠수함단으로서 조선반도와 상당히 먼 지역에서도 작전을 진행할수 있을것이다.》(미국 한 북조선군사문제전문가

의 평)

《잠수함탄도탄이 미국과 남조선에 대한 실제적인 핵타격수단으로 될것이다. 조선의 잠수함은 미국수역으로 은밀하게 수중항행하여 수중탄도미사일로 미국의 주요군사시설들과 본토를 타격할것이다. 결과 조선의 장거리미사일들이 미국본토를 타격할수 있게 되었다는 전제가 더욱 확고한것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잠수함탄도미사일의 선제타격은 정찰위성이나 조기경보기로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다. ...미사일 방위체계에 대한 전진검토가 불가피하다.》(한 외국통신)

《내외가 인정하는바 같이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발사시험의 완성은 선군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려는 적대세력들을 임의의 수역에서 타격시킬수 있는 세계적인 전략무기를 가지게 하고 마음먹은대로 수중작전을 진행할수 있게 하였다.대인공지구위성발사에 못지 않은 전략적의의가 있다.》

또한 려장들의 각축장으로서 깃발하에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수명권이 영연한 과거사로 되었다고 현명한 우리 당의 자주적립장의 정당성을 실천으로 세계에 다시한번 립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깊은바다는 잠수함의 활무대, 고속도로나 같다.》는 군사전문가들의 평을 남두에 들 때 우리의 전략잠수함탄도탄개발이 가지는 군사전략적의의는 심원하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우리의 전략잠수함탄도탄에 《북극성》이라는 이름으로 선군조선의 의지를 새겼다.

여론들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미제국, 주의를 정의의 핵보복으로 과녁시시겠 다고 당당히 경고하는 나라는 그 어떤 대국에도 아닌 바로 조선이라고 평하고 있다.

전략잠수함탄도탄은 도박자, 침략자들의 위장통에 매달려지도 못하겠고 미제를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

는 시한탄이다.

지금 미국과 피피티들, 일본반동들은 우리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성공에 당황망조하여 발원잠을 못하고 있다.

미국과 피피티들의 그 무슨 《동맹》타령은 세상의 조소를 자아내는 맥박이 짝이 끊어지고 있다. 반세기이상 구축해온 남조선미국 《연합방위체계》가 완전히 무용지물의 골동품이 되었다. 모든 북침전쟁전략과 작전계획들이 뒤죽박죽되었다는것이 근본리유이다. 완전히 닳았던 대 지붕처다보는 격이다.》(한 외국통신)

청와대와 피피티정부, 국회가 발각 뒤집고 집권자의 주재하에 외교안보장관회의나, 긴급안보대책장관회의나 하고 북세력을 피우지만 개진 폭박을 쓰고 날벼락막기라하는것이 항간의 주장이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북에 리통수를 맞은 청와대와 미국》이라는 내용의 글에서 《미국과 청와대가 이번엔 리통수를 한데 세계 맞았다. 사실 서울에 미사일이 1-2발만 떨어지면 아마 미국의 혼란상황이 일어날것이다. 《김정은》이나 고교도요격미사일체제 《사드》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페트리트》 미사일도 겁에 그동안 쓴 1조원은 하늘로 날아가는 황망한 페트로 초토화시킨다는것이 백두산혁명강군의 불변의 립장이다.》

미국이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당각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계속 도전해나선다면 세계가 알지 못하는 비참한 최후통첩을 저들의 땅덩어리에서 맞게 될것이다.

그것은 세계를 이어온 반미대결사에서 중저수준 최고 통일강국의 새로운 력사의 페이지를 펼치는 조선민족의 최후승리의 통장훈으로 될것이다.

리효진

연제인이 남조선의 한 종교인사는 《이북에서선 평등자녀에게서 출중하시어 민중이 일심단결되고 온 사회가 회복된 대가정을 이루고있다. 평등자와 민중이 일심단결된 이 희한한 현실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신비경이로 아니할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늘나라도 아닌 한지맥으로 잇닿아있는 북에 리상상이 펼쳐진대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기업가는 《내가 보건대 고난이 덧쌓일수록 평등자의 주위에 전체 민중이 더욱더 굳게 뭉쳐지고 있는것이 이북의 모습이다. 북에서 말하는 혼연일체, 일심단결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았다.》고 하면서 기관을 금지 못하였다.

이것은 천만사람이 말해도 한소리라고 친만대로 가 절여가도 한결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일심단결을 목격하면서 남녘에가 거처지는 찬란의 목소리들이다.

서울의 한 언론인은 《공화국북반부는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단합의 정치정부를 현실화한 유일무이한 나라》라고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북의 위대한 현실은 이민위원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언덕정지, 민중사랑의 정치가 낳은 빛나는 결정체이다. 예나 지금이나 자기 수명, 자기 정권에 대한 이북민중의 지지와 신뢰는 변함없이 있고 절대적임을 나는 다시한번 똑똑히 확인했다. 이것은 오직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이북의 사회주의제도에서란 찾아볼수 있는 일이다.

미국적 힘이 제아무리 강대하고 세계반동세력이 더 담배들어 도 위인을 따르고 위인을 중심으로 뭉친 이북의 막강한 위력에서는 너무나도 무력하다는것을 우리 민중은 요즘 더욱 새롭게 느끼면서 민족적자부심을 가슴속깊이 간직한다.》

서울의 한 정치학교수는 《최근 세계의 판도는 김정은최고평등자로서 모이고 있다. 그 분께서는 백두산인민들에게 마른해놓으신 친한 토대에 기초하여 제국주의세력의 도전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셨다.》고 하면서 일심단결을 금지 못하였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평등도 한소리라고 친만대로 가 절여가도 한결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일심단결을 목격하면서 남녘에가 거처지는 찬란의 목소리들이다.

이것은 천만사람이 말해도 한소리라고 친만대로 가 절여가도 한결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일심단결을 목격하면서 남녘에가 거처지는 찬란의 목소리들이다.

이것은 천만사람이 말해도 한소리라고 친만대로 가 절여가도 한결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일심단결을 목격하면서 남녘에가 거처지는 찬란의 목소리들이다.

이것은 천만사람이 말해도 한소리라고 친만대로 가 절여가도 한결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일심단결을 목격하면서 남녘에가 거처지는 찬란의 목소리들이다.

이것은 천만사람이 말해도 한소리라고 친만대로 가 절여가도 한결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일심단결을 목격하면서 남녘에가 거처지는 찬란의 목소리들이다.

이것은 천만사람이 말해도 한소리라고 친만대로 가 절여가도 한결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일심단결을 목격하면서 남녘에가 거처지는 찬란의 목소리들이다.

이것은 천만사람이 말해도 한소리라고 친만대로 가 절여가도 한결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일심단결을 목격하면서 남녘에가 거처지는 찬란의 목소리들이다.

이것은 천만사람이 말해도 한소리라고 친만대로 가 절여가도 한결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일심단결을 목격하면서 남녘에가 거처지는 찬란의 목소리들이다.

이것은 천만사람이 말해도 한소리라고 친만대로 가 절여가도 한결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일심단결을 목격하면서 남녘에가 거처지는 찬란의 목소리들이다.

이것은 천만사람이 말해도 한소리라고 친만대로 가 절여가도 한결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일심단결을 목격하면서 남녘에가 거처지는 찬란의 목소리들이다.

이것은 천만사람이 말해도 한소리라고 친만대로 가 절여가도 한결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일심단결을 목격하면서 남녘에가 거처지는 찬란의 목소리들이다.

이것은 천만사람이 말해도 한소리라고 친만대로 가 절여가도 한결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일심단결을 목격하면서 남녘에가 거처지는 찬란의 목소리들이다.

이것은 천만사람이 말해도 한소리라고 친만대로 가 절여가도 한결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일심단결을 목격하면서 남녘에가 거처지는 찬란의 목소리들이다.

이것은 천만사람이 말해도 한소리라고 친만대로 가 절여가도 한결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일심단결을 목격하면서 남녘에가 거처지는 찬란의 목소리들이다.

이것은 천만사람이 말해도 한소리라고 친만대로 가 절여가도 한결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일심단결을 목격하면서 남녘에가 거처지는 찬란의 목소리들이다.

이것은 천만사람이 말해도 한소리라고 친만대로 가 절여가도 한결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일심단결을 목격하면서 남녘에가 거처지는 찬란의 목소리들이다.

이것은 천만사람이 말해도 한소리라고 친만대로 가 절여가도 한결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일심단결을 목격하면서 남녘에가 거처지는 찬란의 목소리들이다.

이것은 천만사람이 말해도 한소리라고 친만대로 가 절여가도 한결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일심단결을 목격하면서 남녘에가 거처지는 찬란의 목소리들이다.

이것은 천만사람이 말해도 한소리라고 친만대로 가 절여가도 한결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일심단결을 목격하면서 남녘에가 거처지는 찬란의 목소리들이다.

이것은 천만사람이 말해도 한소리라고 친만대로 가 절여가도 한결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일심단결을 목격하면서 남녘에가 거처지는 찬란의 목소리들이다.

이것은 천만사람이 말해도 한소리라고 친만대로 가 절여가도 한결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일심단결을 목격하면서 남녘에가 거처지는 찬란의 목소리들이다.

이것은 천만사람이 말해도 한소리라고 친만대로 가 절여가도 한결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일심단결을 목격하면서 남녘에가 거처지는 찬란의 목소리들이다.

이것은 천만사람이 말해도 한소리라고 친만대로 가 절여가도 한결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일심단결을 목격하면서 남녘에가 거처지는 찬란의 목소리들이다.

이것은 천만사람이 말해도 한소리라고 친만대로 가 절여가도 한결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일심단결을 목격하면서 남녘에가 거처지는 찬란의 목소리들이다.

이것은 천만사람이 말해도 한소리라고 친만대로 가 절여가도 한결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일심단결을 목격하면서 남녘에가 거처지는 찬란의 목소리들이다.

이것은 천만사람이 말해도 한소리라고 친만대로 가 절여가도 한결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일심단결을 목격하면서 남녘에가 거처지는 찬란의 목소리들이다.

이것은 천만사람이 말해도 한소리라고 친만대로 가 절여가도 한결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일심단결을 목격하면서 남녘에가 거처지는 찬란의 목소리들이다.

## 단 평 어용나팔수가 당한 개코망신

얼마전 남조선의 한 보수방송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여 시위투쟁에 나선 유가족과 시민들을 《폭력시위대》로 부각시키는 편성물을 내보냈다가 개코망신을 당하였다.

일인즉 이 방송이 시위자들에게 경찰들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들을 《단독인수》라는 자막까지 찍 내걸고 보도하였는데 얼마 안있어서 그것이 7년전 지어 12년전 찍은 사진들이라는 것이 들쭉날쭉 것이다. 방송사제거자들은 뻔뻔스럽게도 《세월》호투쟁파는 전혀 상관없는 사진들을 근거로 조작방송을 하면서 《폭력이란무한 《세월》호시위를 합리화할수 있나?》고 피대를 툭구자고 한다.

이 얼마나 비렬한 추돌들인가. 애어린 자

식들을 졸지에 잃은 원한이 너무도 가슴에 사무쳐와 1년이 넘도록 사진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피눈물나는 투쟁을 벌리는 유가족들에게 동정은 못 보낼정도로 개코망신까지 내보내며 그들을 폭력분자로 매도하였으니 파시 모략과 권모술수에 이골이 난 독재 《정권》의 하수인답다고 해야 할것이다. 분명 이자들은 《세월》호투쟁파가들에 대한 극악무도한 파쇼적대처를 여론의 규탄을 받고 궁지에 몰린 피피티진사자들한테도 그의 비위를 맞추며 만악 《정권》라디오운을 가라앉히려려고 그따위 눈물을 벌렸을것이다.

하지만 그 약삭바른 리산이 일을 쳤다.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은 물론 시정자들이 편집물까지 조작하며 보수 《정권》의 어

용나팔수노릇을 하는 방송사측의 파렴치한 처사에 일체하 분노를 터렸었다. 금메달은자들이 《버저린 실수》나, 《사과》나 하며 동이 맞지 않는 소리로 구구히 변명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독재자에게 아첨한다는것이 오히려 화만 들소코말았다.

언론의 초보적인 사망마저 제비라니 독재 《정권》의 앞잡이노릇만 하는 피피티보수 언론에게는 그런 망신밖에 차례질것이 없다. 이런것을 두고 곤장치고 매벌이를 한다 고 한다.

명예가 언론인이라는자들이 민심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분간 못하고 살인마의 편에서 못된것을 했으니 봉변을 겪는것은 너무도 응당하지 않겠는가.

김향미

## 일본은 조선반도재침략을 위한 안보법률제정안을 폐기하라

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도 수상이 《자위대》의 방위출동을 명령할수 있게 한 《자위대법》 등 모두 11개의 법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밝혔다.

이 법들은 지난 4월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국내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법안은 일본국회를 통과하면 《자위대》는 평시든, 긴급사태든 지리적 제약없이 세계 어디에서나 미군과 공동작전을 수행할수 있게 된다고 하면서 이로써 일본 《자위대》의 해외침략문화가 시작되었다고 비난하였다.

세계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일본당국의 횡포를 방위협력

경로 용서할수 없다고 하면서 회견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오늘 일본의 안보법률제정안을 규탄하고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조선반도가 화순적으로 일본의 세침략위협에 놓이게 되기때문이다. 《자위대》의 조선반도진출의 합법화는 미국의 《대북신 경제공격》

《자위대》는 평시든, 긴급사태든 지리적 제약없이 세계 어디에서나 미군과 공동작전을 수행할수 있게 된다고 하면서 이로써 일본 《자위대》의 해외침략문화가 시작되었다고 비난하였다.

세계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일본당국의 횡포를 방위협력

지침》과 안보법률제정안에 의하면 일본이 북을 선제공격할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안보법률제정안의 불법무효를 선언한다.

일본은 조선반도재침략을 위한 안보법률제정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안보법률 제정안 폐기하라!

##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 물도바 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김형준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가 13일 니콜라이 피도프피 물도바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김형준은 김정은 동지께서 니콜라이 피도프피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말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말을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가장 존중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말 전하였으며 동지께서는 대사에게 부각하였다.

그는 자신과 물도바인민은 세계 정치원으로인 김일성주석께서 1984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방문하신던 나날에 물도바의 국경도시 우케냐에 들리시었던 감격적인 일들을 아직도 가슴 뜨겁게 추억하고있다고 하면서

그 시기에 마련된 훌륭한 전통에 토대하여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확대발전되어가는 확인을 표시하였다.

김형준은 김정은 동지의 명도말에 친선적인 조선인민이 나라의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산림자원은 나라의 만년대계의 귀중한 재부이며 오늘날 목재생산을 높이는것은 인민경제발전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지난해말 다혜생산준비시설을 앞두고 열린 일꾼들의 회의에서 사업소지배인 김창남동주가 사이나르기공정을 없애자는 대담한 결심을 터놓았을 때였다.

많은 일꾼들이 지배인의 말을 두고 의아해하였다.

(나무베기, 사이나르기, 마감나르기가 사슬처럼 이어진 통나무무성산공정에서 사이나르기공정을 어떻게 없앨단 말인가.)

체벌장에 쌓아놓은 통나무를 나무루까지 끌어내리는 사이나

## 년간 계획을 석달동안에 끝낸 비결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로 세차게 뚫어지고있는 속에 화평림산사업소에 있는 놀라운 성과가 이루어졌다.

이곳 사업소일꾼들과 로동자들이 3월까지 연간 통나무무성산 계획을 앞당겨 수행한것이다.

그러한 일꾼들에게 지배인은 호기있게 말하였다.

《체벌장가이에 마감나르기공정을 접선시키면 될게 아닙니까. 오늘 당에서는 우리 일꾼들이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창조적으로 일해나갈것을 바라고있습니다.》

《산림자원은 나라의 만년대계의 귀중한 재부이며 오늘날 목재생산을 높이는것은 인민경제발전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작업소들에서는 체벌장가이에 나무루들을 정하고 그곳까지 운재차들을 들이밀수 있게 길을 내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때 따라 작업소들에서 생산준비건설이 경제적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 화평림산사업소 일꾼들의 사업에서

트기공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위훈창조로 이루어졌을 불리이기는 사상공세를 진공적으로 들이댔다.

사업소일꾼들은 작업소들을 맡고 나가 정지사업을 앞세우며 걸린 문제들을 앞질러가며 풀어나갔다.

사업소에서는 짧은 기간에 3천㎡의 토장을 처리하고 가장 어렵게 생각하던 600m구간의 암반을 깨내면서 체벌장가이에 못들을 운재길을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사업소에서는 4 800m의 사이나르기길이 없어지고 체벌장가이에 11개의 나무루가 새로 생겨나게 되었다.

사이나르기공정이 없으면 결과 작업소들에서는 많은 로력과 연유를 절약하면서도 통나무수송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킬수 있게 되었다.

물론 운재차들이 올라오는 길에 경사가 급한 구간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구간을 통과할 때는 트랙도르가 운재차들의 운행을 협력해 주었다.

화평림산사업소 일꾼들의 사업은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 확고한 주관과 주도세밀한 작전과 모험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나갈 때 놀라운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특약기자 풍 세 응

## 년간 계획을 석달동안에 끝낸 비결

이런 타산 밑에 일꾼들은 지난 해에 벌여 자체의 힘으로 20톤에 수백톤에 달하는 분진기계부속품을 마련했고 수리기계를 보다 튼튼히 꾸리는데 힘을 넣었다.

이와 함께 공무수수정 수리작업반 수리공률도 이공수정률 조직하고 그들이 운재차들의 실물품을 높이는데 한층하도록 구공성을 높였다.

이렇게 운재차들의 실물품을 높이는데 힘쓰니 통나무수송이 나르기실적은 전례없이 뛰액 올라갔다.

사업소일꾼들의 통나무수송 조직과 지휘에서도 본받을만 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일꾼들이 운재차들의 실물품과 수리공률의 나무루들을 내가 쌓아놓은 통나무수송을 정확히 확인하고 선차차를 갈라 고정부차하는 방법이다.

물론 운재차들이 밀려 들어오는 작업소들에는 편대수송을 조직하는 방법으로도 마감나르기실적을 올렸었다.

화평림산사업소 일꾼들의 사업은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 확고한 주관과 주도세밀한 작전과 모험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나갈 때 놀라운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특약기자 풍 세 응

## 년간 계획을 석달동안에 끝낸 비결

이런 타산 밑에 일꾼들은 지난 해에 벌여 자체의 힘으로 20톤에 수백톤에 달하는 분진기계부속품을 마련했고 수리기계를 보다 튼튼히 꾸리는데 힘을 넣었다.

이와 함께 공무수수정 수리작업반 수리공률도 이공수정률 조직하고 그들이 운재차들의 실물품을 높이는데 한층하도록 구공성을 높였다.

이렇게 운재차들의 실물품을 높이는데 힘쓰니 통나무수송이 나르기실적은 전례없이 뛰액 올라갔다.

사업소일꾼들의 통나무수송 조직과 지휘에서도 본받을만 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일꾼들이 운재차들의 실물품과 수리공률의 나무루들을 내가 쌓아놓은 통나무수송을 정확히 확인하고 선차차를 갈라 고정부차하는 방법이다.

물론 운재차들이 밀려 들어오는 작업소들에는 편대수송을 조직하는 방법으로도 마감나르기실적을 올렸었다.

화평림산사업소 일꾼들의 사업은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 확고한 주관과 주도세밀한 작전과 모험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나갈 때 놀라운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특약기자 풍 세 응

# 핵전파, 핵군비경쟁의 장본인은 미국이다

미국의 어중이떠중이들이 우리의 《핵위협》설을 여론화하기 위해 허튼소리를 계속 늘어놓고있다.

미군부세력은 《북조선의 핵위협》이 미국본토뿐만아니라 조선반도의 제양이며 세계를 혼란에 빠뜨릴수 있다고 어부지레를 치고있다. 그들은 우리가 핵무기전파금지제도를 파괴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있다는듯이 오도하면서 저들이 《북조선의 핵위협》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있다고 떠들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핵위협》설을 떠드는것은 기만이다.

그것은 세계평화의 핵보유국, 핵전과국인 저들에게서 쫓겨난 핵보유국인 북한의 핵을 우리에게 돌려보려는 교활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나 핵병인의 모자를 씌워보려고 허무맹랑한 나팔을 불어대는 조선에서 핵전쟁광신자로서의 미국의 정체를 다시금 까밝혀보지 않을수 없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광동에 광복해왔다. 조선반도에 처음으로 핵무기를 끌어들이는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다. 1950년대 후반기 일본에서 반핵운동이 고조되어 친미정권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자 미국은 일본에 배비하였던 핵무기를 남조선으로 옮겨놓았다. 결국 미국은 일본을 《비핵화》하는 대가로 남조선에 핵무기를 도입하도록 만들었다. 남조선에 핵전초기지를 만들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는것이 미국의 침략적기도이다.

새로운 조선전쟁을 도발하여 전조선반도를 타도하고도 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야망밑에 미국은 남조선에 1000여개의 핵무기가 들어찬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를 전진시켰다.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왔다. 1950년대에 들어와 아시아에 원자무기가 없는 평화지대를 건설할데 대하여 밝히하였다. 1980년대초에는 동북아시아비핵지대협정을 내놓았다. 1980년대 중엽에는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데 대하여 제안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모든 노력을 외면하고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을 가중시켜왔다.

우리 공화국이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전파금지조약과 핵무기 선포한 후 미국의 핵공격을 더욱 엄중히 지적하여 이르렀다.

부처평정부는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지명하였으며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켰다.

나라와 민족의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게 될 특수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미국의 극도의 핵위협에 부득불 핵억제력으로 대응하는 길로 나가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을 가하는 진병인이 누구인가는 더이상 논할 여지도 없다.

미국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핵위협과 전파를 막아야 한다 고 하면서 마치도 저들이 그 판심이 있는듯이 떠들어대고있지만 진속은 감출수 없다.

내용은 없이 결만 번지르르한 미사여구처럼 듣기가 역스러운것은 없다.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는 미국이 제창하는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이 바로 그러하다.

미국의 세계체제전략은 핵무기를 기본 수단으로 하고있다. 그들은 핵무기를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유린할수있는데 필요한 만능의 수단으로 간주하고있다. 핵보유국이던 비핵국가이던 관계없이 핵공격을 들이대고있다. 그를 통해 《유일초대국》이 되어보려 하고있다.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핵무기들을 가지고 전세계를 위협하고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다.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이 빛나는 개살구라는것은 너무나 다도 명백하다.

하다면 무엇때문에 미국은 그따위 결치레에 그처럼 극성스럽게 매달리는가.

핵전쟁중식후 극도로 오만해진 미국은 세계도처에서 강권과 전횡을 부려왔다. 특히 새 세기에 들어와 《반테로전》의 간판밑에 유엔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주권국가들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여 세계를 공포와 불안속에 몰아넣었다. 미국의 침략적행위에 해 세계가 새로운 핵전쟁문어구에 들어섰고있는것은 인류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지구촌 핵위기의 위험속에 빠뜨리고있는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만이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미국에는 이것을 녹차하기 위해 《핵무기없는 세계》간판이 필요하였다.

말하자면 평화에 큰 관심이나 있는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을 들고나왔던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나라들을 기만하고 세계민심을 그러러기 위한 하나의 정치광고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고있다.

핵무기전파금지제도를 붕괴시키고있는 진병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현존핵무기전파금지조약은 미국 등의 핵억제력을 고수하고 그 특권체제를 법제화하려고 만들어낸것이다.

미국은 핵무기전파금지조약을 세계체제 전략을 담보하는 하나의 중요한 공간으로 보고있다. 그것은 비핵국가들만 몰가기를 걸어놓는 국제적인 조약들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조약이다.

미국이 핵무기전파금지조약을 한사코 유지해보려는것은 핵무기없는 세계를 바라다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커가는 핵불안증, 핵공포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다시말하면 핵무기전파금지조약이 붕괴되면 저들이 아무리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있다고 해도 핵우세는 끝장나고말았기라는 불안감때문이다.

미국이 핵무기전파금지에 대해 요란히 떠들어대고 그것은 국제사회의 배척을 받고있다.

국제문제전문가들속에서 미국의 불공평한 핵정책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핵무기전파금지조약의 존재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그 근거는 핵문제에서 미국이 이중기준을 적용하고있고 핵무기전파금지조약이 매우 공정치 못하다는것이다. 미국은 핵무기전파금지조약의 해당 내용을 무시하고 자기 비위에 거슬러는 나라들의 평화적핵활동을 《비법》으로 묘사하고있고 핵위협을 가하여 그 나라들을 침묵시키고 억압하게 시도하고있다. 자기들의 비위에 맞는 나라의 핵보유는 묵인하고 반대로 반미적인 나라들의 핵개발은 문제시하면서 체제를 가하고있다. 미국의 이중기준과 핵무기전파금지조약의 불평등은 결국 일부 주권국가들의 반발과 핵

무기전파금지제도의 붕괴를 초래하는 근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최근 러시아가 미국이 다른 나라 평토들에 핵무기를 전파하면서 국제조약을 판 폭하게 위반하고있다고 비난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핵군비경쟁의 바람을 일으키는 장본인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핵무기없는 세계》를 제창하던 오바마행정부는 낡은 핵무기와 핵관련시설들의 개조를 추진하여 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지난해에 1950년대후 가장 큰 규모의 자금을 핵무기의 연구, 개발, 시험생산에 할당하였다. 앞으로 30년동안 핵무기현대화에 1조US\$를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오늘에 와서 세계는 오바마정권의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이 미국의 침략적인 핵정책을 가리우고 국제사회를 기만하기 위한 늑두령광고에 불과한것이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고있다.

미국에서도 《핵무기없는 세계》를 제창하면서 핵무기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당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세계적인 핵위협과 군비경쟁의 장본인인 미국이 국제적인 반대성이 되고있는것은 당연하다. 미국의 기만적이고 불공평한 핵정책,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 끊임없이 강행하는 핵공보는 그 피해국들로 하여금 미국이 의기하고있는 핵우세, 핵무기전파금지조약을 없애버리는데로 지향하게 하고있다.

미국의 핵무기현대화책들은 여러 핵보유국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핵무기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게 하고있다.

미국이야말로 지구상에 핵재산을 몰아오는 최근이다.

세계적으로 조선반도처럼 핵전쟁위험이 짙은 곳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 공화국이 날로 로골화되는 미국의 핵전쟁정책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강화하고있는것은 천만만 정당하다.

우리는 미국이 기만적인 《핵무기없는 세계》를 제창하는 말든 그 구에임이 없이 전쟁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것이다.

# 피고석에 끌어내야 할 인권범죄자

얼마전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지난 4월말에 흑인청년살해사건이 발생하고 이어 흑인폭동이 일어났고 판관하여 이번 사건은 새로운것이나 아니라는니, 이러한 사건은 수십년째 계속 발생하고있다는니 뭐니 하면서 인종차별이 극심한 사회현실을 개탄하였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미국의 인권유린 범죄는 이미 세상에 드러날데로 드러나 별로 새삼스러울것이 못된다.

미국의 인권유린만행에 대해 떨거하자면 끝이 없다.

최근 인도네시아신문 《폼파스》가 《미국식 민주주의의 폭력》이라는 제목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불타오르에서의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폭동에 대한 소식은 미국사회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서술하였다.

《정의가 없는 곳에 평화가 있을수 없는 법이다. 법의 특권을 누리며 인종차별행위를 일삼는 경찰에 대한 시위자들의 분노의 폭발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이다. 공경하고 정당한 법집행으로 흑인계만이 아닌 전사회적인 요구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가장 요란스럽게 떠들며 제노라고 하는 미국식민주주의의 흑점이며 더러운 오점이라고 할수 있는것이다》.

그렇다. 인종차별은 미국사회의 뿌리깊은 악성종양과도 같다.

미국에서는 소수인종 및 민족성인들이 범죄의 주요피해자로, 사법당국의 편견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흑인을 위주로 한 감금자들은 대상으로 의약물실험 등과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끊임없이 감행되고있으며 백인이 아닌 흑인들에 대한 경찰들의 인권유린행위가 계속되고있다. 최근년간 편이 일어나고 있는 흑인들에 대한 백인경찰들의 살상사건은 인종차별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인종차별은 영원히 없앨수 없는 미국의 고질적인 악습, 사회적종조이다. 오죽하면 국제사령이 세계적으로 가장 엄중한 5대인 인권유린대상의 맨 첫자리에 미국을 놓았겠는가.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도 새는 법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도 인간

중으로 가득찬 야수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지난 5일 미국인턴테트신문 《더 포스트 보이스》에 미군이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을 목표로 삼고 의도적으로 학살하고있는 기사가 실렸다. 같은 미군장성들이 자기 병사들의 개 무고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도록 살인명령을 주고 그 어떤 죄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세뇌교육을 하였다고 폭로하면서 세계적으로 미국과 같이 국제법에는 물론 자기 나라의 법규정도 무시하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인디언을 멸살시키고 그 피바다우에 솟아난 피의 제국, 약의 제국이다. 가까운 실례로 미국은 9.11사건이후에만도 《반테로전》의 간판밑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무고한 주민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라크에서는 2003년부터 5년동안 미군에 의해 120만 5000여명의 이라크인들이 목숨을 잃고 100만명이 실종되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2011년 한해동안에만도 3000여명이 미군의 《반테로전》의 희생물로 되었다. 《테로기조소량》이라는 미명하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감행된 미국의 무인기공습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있다.

미국이 세계도처에 손을 뻗쳐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쳐주고있는 《반테로전》이 전대미문의 국가테로범죄, 특대형인권침해행위라는것은 더 증명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인권이름으로 가득찬 미국이 주체권에도 《인권홍보》에 대해 목더지게 왜해대며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결코듣고있는것이 아니다. 국제사회는 대한 경찰들의 인권유린행위를 계속되고있다. 최근년간 편이 일어나고 있는 흑인들에 대한 백인경찰들의 살상사건은 인종차별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제법도, 세계적인 반대도 무시하고 세상이 좁다하게 돌아치며 감행하고있는 미국의 인권유린행위를 반인륜적범죄로서 철대로 목파죄수들이다.

세계는 인권재판정의 피고석에 미국을 끌어내야 한다.

# 본받아야 할 조선청년들의 전투적기백

##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대표단 단장 걱정 로로

우리 나라를 방문한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대표단 단장 드미트리 고스젠코는 위대한 령장의 두리에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친 조선청년들의 모습에서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오늘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고있다.

특히 청년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선군정치를 만드는 투쟁에 앞장서고있다.

그들은 자기 수령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청년들이 구호나무를 지키면 청년용사들의 소행은 우리를 무한히 감동시키고있다.

그 누구도 명명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달려가 구호나무를 지키기 위해 자기들의 목숨을 서슴없이 바치였다.

더우기 불속에서 마지막순간까지 자기 수령의 초상화영상을 송중직 간직하고 생을 마친 영웅적인 행동은 조선청년들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놀라운 희생정신의 발현이다.

조선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 청년들은 앞장에서 불과구를 열어나가며 청년영웅도로를 비롯하여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없이 일떠세웠다.

조선청년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그는 미국이 자주적인 독립국가처럼 동맹나라들을 배후로부터 밀어내서 친미정권을 세우기 위해 《핵전쟁》을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고 주변나라들에 《반테로전》을 확대하면서 민간인들을 대량학살하고있는것은 국가테로행위, 특대형인권유린행위의 전형으로 되고있다.

오늘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국의 책들은 극도로 달고있다. 그러나 자기 령도자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청년들과 인민들이 있기에 감히 어찌지 못하고 있다.

조선청년들은 위대한 선군혁명명도를 받들어 사회주의건설과 조국보위에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그들의 영웅적기상과 전투적기백은 전세계 진보적청년들이 본받아야 할 본보기로 되고있다.

우라도 투쟁하고 더욱 깊이 연구하고 널리 선전하며 현실에 창조적으로 구현해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밑에 반제국주의의 전조선인 조선이 모든 분야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

#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 꾸바에서

꾸바의 판파나모우에서 흑인 가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에서는 팜밤 주민들이 물 절약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는 한편 물소비량과 공급량을 조절 통제하는 사업들이 곧 진행되게 된다.

13일 주정부는 올해에 들어와 가물이 지속되고 저수지의 수면이 낮아져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애로와 난관이 조성되었다고 하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란에서

이란정부가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를 적극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있다.

그한 고리로 동부아제르바이잔주에 전국적으로 가장 큰 태양열발전소 건설되게 된다.

## 부지면적이 4323㎡에 달하는 이 발전소는 2년안에 완공될 것이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정부가 색정범죄를 비롯한 온갖 위법현상과의 투쟁을 강화하고있다.

나라에서는 최근에만도 80만개의 색정적인 웹사이트들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2일 정부는 이에 대해 밝히면서 앞으로도 불건전하고 추잡한 내용이 류포되는것을 막기 위한 사업을 항구적으로 밀고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방글라데슈에서

방글라데슈의 세관당국이 12일 치타공시에 있는 비행장에서 금품수송행위를 적발하였다.

결과 38kg의 금괴가 압수되었다 한다.

다이에서

타이에서 인신매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 잠비아에서

잠비아에서 동광산을 새로 개발할것을 계획하고있다.

나라의 중부지역에 위치하게 되는 이 광산의 운영이 활성화되면 연간 약 5만 8000의 동을 생산하게 된다. 12일이나 나라의 한 신문이 밝혔다.



월남에서 논벼비배관리

# 진리다름은 어떤 것인가

세계(인연제판)행세를 하며 거들떠거리던 미국이 지구로 인연제판정의 심판대에 올라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지난 11일 제네바에서는 유엔인권리사화산하 보편적인진상조사정기심의 실무그룹 제22차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미국의 심각한 인권유린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심의가 있었다.

수감자들에 대한 미중앙정보국의 고문만행과 대규모인도청행위, 피로리를 들고 일어나는 백인경찰들의 흑인살해행위, 이주민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 판파나모미해군기지감옥문제 등 미국이 국내외에서 감행하고 있는 불법무도한 인권유린행위들이 초점이 쏠려왔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 저들이 저지른 인권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을 모면해보려고 성원 30여명중 거의 절반인원이 유색인종과 인디언과 같은 원주민 출신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참가시켰다. 심의 첫 공청인 보고서 소개발언에서 미국측 대표자는 자는 저들의 그 무슨 《인권향상

을 위한 노력》에 대해 운운하며 앞으로 《인권의 보편적가치수현을 위해 더 노력할것》이라는 피대면 제반을 늘어놓았다.

이것은 회의참가자들의 커다란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심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을 비롯하여 122개 나라와 지역의 대표들이 연설하였다. 이것은 심의의 역사상 최고기록으로 된다.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은 연설에서 미국의 고문만행을 피계문서시하면서 《북조선인권법》을 비롯한 미국의 치외법권적법행위들에 대해 준법리 폭로규탄하였다. 또한 수감자들에 대한 미중앙정보국의 야수적인 고문만행, 백인경찰들의 흑인살해와 인종차별행위를, 남조선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의 강간범죄와 비인간적인 민간인살륙만행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로씨야와 꾸바대표도 미중앙정보국의 고문만행을 비난하면서 인종차별의 근원을 뿌리뽑고 원주민과 이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할것을 촉구하였다.

이란, 파키스탄, 수단, 말레이시아, 리비아 등 많은 나라 대표들은 미중앙정보국의 고문만행을 반인권적행위로 탄원하고 판파나모미해군기지감옥을 비롯한 미국의 모든 해외감옥들을 폐쇄할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베네수엘라대표는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와 적대행위들을 종식시킬것을 요구해나갔다.

브라질, 알제리,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볼스카대표들과 자이보르투갈, 스위스, 영국 등

서방나라 대표들도 미국사회에 민연하고있는 인종차별, 여성차별, 경찰의 잔인한 폭력, 도청, 감시 등 갖은 인권유린행위들을 비난하면서 미중앙정보국의 고문만행조사를 위한 독자적인 기구를 설치하되 판파나모미해군기지감옥에대공약을 실천에 옮길것을 미행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 남조선, 이란,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의사와는 배치되지 않는 미중앙정보국의 고문만행조사를 내칠한 친미주류로서의 본색을 또다시 드러내놓았다가 개포장시킨 단 당하였다.

한편 회의장에서 오만한 자세를 취하던 미국대표들은 많은 나라들의 비발치는 공격에 주눅이 들어 구차스러운 변명만을 늘어놓았는가 하면 저들의 인권유린행위를 어떻게 하나 덮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공청회에도 이번 심의는 지금까지 《인권문제》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에 훈시질하던 미국을 인권심판대에 세우고 이 나라의 인권유린실태를 구체적으로 파헤쳐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시키며 미국이 한창하는 《인권, 민주주의》가 온갖 위선에 불과하다는것을 깨닫는 계기로 되었다.

자주속의 중장은 감출수 없듯이 미국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인권범죄는 그 어떤 면모수설로도 절대로 가려울수도, 덮어버릴수도 없다.

인권범죄의 투독인 미국이 인권재판정의 피고석에 올라 국제사회의 준법적인 심판을 받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력사는 인권유린의 왕조, 인권범죄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 협 조

꾸바와 알제리가 4일 보건분야에서 두 나라사이의 협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합의는 꾸바국가리사외 위원장 라울 카스트로의 알제리방문과정에 이룩되었다.

한편 최근 이라크주정권변과 볼스카가 무역, 재정메리트 등 분야에서 쌍무협조를 확대발전시키기로 하였다.

## 에볼라방지사업에서 협력할것을 호소

포고대통령 포르 에초집나 그나생그베가 최근 외국방문 과정에서 현 연설에서 에볼라방지사업에서 협력할것을 호소하였다.

세계보건기구 리베리아에 에볼라바이러스가 더는 전파되지 않는 나라로 선포한데 대해 언급하고 그는 이 전염병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저

## 미국 집권자의 망발 배격

이란의무상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가 13일 자기 나라를 비방장수한 미국집권자의 망발을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집권자가 이란이 중동에서 테로를 조장하고 평화를 파괴하고있다고 떠벌인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무근거한것으로 타인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가톨릭전력이 강한 작품육출에도 도움되는 새로운 방법 개발

어느 한 나라의 연구자가 작물이 가물에 견디어내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늦은 투명한 수지단자의 인연을 따라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들을 자체히 관찰할 수 있다. 현재 새로운 방법에 의한 핵융속연구가 진행되고있다.

연구사는 뿌리의 길이와 갈래수를 늘이는 방식으로 물줄수능력을 높여 작물을 보호할수 있다고 하면서 뿌리는 투명한 수지단자의 인연을 따라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들을 자체히 관찰할 수 있다. 현재 새로운 방법에 의한 핵융속연구가 진행되고있다.

또한 작물의 이러한 특징들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발에서 자라는 밀뿌리의 성장방향을 추정할수 있다고 강조하고 투명한 수지단자의 가장자리를 따라 밀종자를 심어 뿌리의 특징을 알아내는 방법은 완전히 새로운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